

고은 불교 대하소설

노승 회월당의 대비

그 들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숲이 차는 고산지대인 신계사에 도착하기까지는 표훈사 노승으로부터 며칠동안 헤아날 수 없게 갈라져있는 상태였다.

그들이 그 노승으로부터 "번번 올라가보아"라는 어정쩡한 승학파도 같은 말을 들은 뒤 걸음에 불을 붙여 길을 재촉한 것이 말이었는지 몇번인가 판 길로 가는 고승을 겪는 동안에도 그 노승의 굴레를 벗어난 것이 아니었다.

노승은 마치 누구에게 물어보는 활진 귀신 같았다. 그 자신의 말대로 하얀 수월이 턱을 맞은 것도 아니고 허리가 좌선으로 꼬장꼬장한 것도 아니게 어젯죽자부터 사

다.

이런 수다스럽기까지 한 수월의 소리에 대한 대답은 끝내 없었다.

그리고 보니 묘사해 섬돌 위에 신발 한 짝도 없었다.

입진왜란 때 왜병의 산중 점령 당시 절을 다 비우고 대중에 달아나면 절에 붙어라도 지르게 될 터인즉 하나둘의 증은 남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도인이 왜병의 칼에 맞아 죽는 대신 절은 온전히 남게 되었다는 사실이 떠오르는 뜻밖의 분위기가 되었다.

과연 침입자는 무엇인가를 해친 다음에야 직성이 조금 풀리는 것이리라.

신계사가 그렇게 해서 보존된 것인지는

"도덕이 높은 분을 친견하는데 살아계실 때와 함께 왕생하신 뒤에도 친견하시어 아지요 석씨 가문에 어찌 생사가 따로이 겠습니까"

수월이나 파현이 좌탈입망의 회월당 법구를 살필 때에도 그 눈감고 앉아있는 모습에서 어린아이의 장난스런 인상을 찾을 수 있었다.



54

막의 침승인양 꾸부정하였다.

신계사는 실로 소승하였다. 그곳에 신계사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절벽지대인지라 마치 하나의 알짜가 잘못해서 허공에 떠돌아 있는 형국이었다.

"이게 잘못하러가는 여가서 우리도 목을 매는 줄이 되겠어요" 라고 파현이 너스레를 떨었다.

"이왕지사!"

라고 수월이 앞장서서 신계사 묘사체에 대고 문안을 전하였다. 모든 것이 마름대로 마름 뒤에서 더이상 마를 것이 없는 상태의 쓰라리게 추운 높은 지대에서 다른 절의 규모에 견줄 수 없는 아주 적소한 도량이었다.

모르나 그대신 중수(重修)를 한 적이 없어서 오래 퇴락한 상태였다.

입진왜란 당시 가포(加普)가 금강산에서 눈독을 들인 것은 이 일대에 출몰하는 조선호랑이를 생포하거나 사살해서 그것을 본국의 도요도미(鷹頭)에게 진상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금강산 선녀봉이나 남쪽 건봉산에서도 호랑이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때가 거의 없었다.

"금강산 호랑이가 씨가 말라 금강산 도

객승을 맞았다.

"우리는 회월대화상을 친견하러 온 사람들인데..."

그러자 사미승이 대꾸하였다. "마침 잘 오셨습니다. 알맞게 오신 것입니다."

두 사람은 사미승을 따라 토굴 안으로 들어갔다. 향내가 진동하고 있었다. 그 향내는 밖의 차고 맑은 공기 속으로 나오기를 주저하는 것처럼 그 토굴 안안을 채운 나머지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었다.

안내하는 사미가 말하였다.

"한나절 전에 왕생하셨습니다. 노스님께서는..."

"어?"

"무엇이라고?"

사미승이 아리따운 얼굴에 희미푸레한 미소를 그리며 한마디 말을 발 아래로 줄

한 도량에서는 만족한 밥과 만족한 잠으로는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없는 것이다.

계다가 이곳의 증들은 하나같이 몸에 열전 한 일도 지낼 수 없었다. 재물은 크고 작고의 차이 없이 중의 몸에 지나는 것이면 억겁의 무간지옥에 떨어져야 할 일이었다.

그리고보니 회월당은 가장 엄중한 계사(戒師)이기도 하였다. 그런 그가 계율보다 자유분방한 무예의 경지와 승려본기의 정신적 지주(支柱)로 소문이 난 것도 심상치 않은 일이었다.

수월이나 파현이 좌탈입망(坐脫入亡)의 회월당 법구(法具)를 살필 때에도 그 눈감고 앉아있는 모습에서 어떤 어린아이들의

었다. 두 객승의 처음과 끝까지의 말상대는 오직 사미승 하나였다.

그가 떠나려는 객승에게 말하였다.

"부디 허공이나 심처 붙잡으십시오. 소승도 그렇까 합니다."

이 말은 당나라 미조 도일(馬祖道一)의 그것과도 멀리 내뿜고 있었던 것인가.

조는 한 학승(學僧)과의 문답에서 바로 허공 붙잡기를 말하였다.

"그대는 60년 회염경을 잘도 가르친다지?"

"승구스럽습니다."

"어떻게 가르치는가?"

"마음으로 가르칩니다."

"하하하 웃음소리를 허공이 좋아 하는구나."

이런 옛날의 사연과 상관없이도 수월과 파현은 신계사를 떠나면서 그들끼리의 너털웃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승장공부라... 승장에도 집착이 있어야 하거니와."

"그럼 세상에 널린 화두 붙잡고 있는 선방 건달들의 집착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집착이라 하면 집착이 다 소멸 되겠군."

"노스님께서는 한나절 전에 왕생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인도 씨가 마른다" 라는 말이 있었다. "금강산 호씨(虎氏)가 없어서 금강산 1만2천 봉마다 산신령이 떠나셨다" 라는 말도 있었다.

어쨌거나 신계사의 적요한 바는 두 사람에게 섬뜩하기까지 하였다. 사람의 지경이 아니라 어떤 유계(幽界)의 지경이 아닌가 하는 착각도 일어났다.

"그만 돌아가게... 다섯자 수염은 고사하고 뱀갈나무의 짙긴 잎새도 붙어있지 못하는 곳일세."

그때였다. 법당과 묘사체 뒤에서 얼핏 허거리는 것이 있었다. 두 사람은 더욱 섬뜩하였다.

"내려갑시다."

하고 파현이 재촉하였다.

과연 법당 뒤에 가려진 곳에 토굴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한 사미승이 잠깐 밖에 나왔다가 들어가는 길이었다. 오중이라도 누가 위해서 나왔던 것인지 모른다.

"오신 줄 알았습니다."

하고 열다섯살쯤의 사미승이 의외하게

를 흘려보내는 것이었다.

"도덕이 높은 분을 친견하건대 그분이 살아계실 때와 함께 그분이 왕생하신 뒤에도 친견하시어 아지요 우리 석씨(釋氏-석가모니) 가문에 어찌 생사가 따로이 겠습니까?"

수월이 고개를 끄덕였다. 수월과 파현도 그 토굴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신계사 대승 5명은 다 그곳에 있었던 것이다. 절에서 함께 사는 고양이 두마리까지 그곳 안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노승 회월당의 죽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 같았다.

말게 해서 회월당의 화상이 마칠 때까지 나흘을 지낸 뒤에야 두 객승은 숲을 내려갈 생각을 하였다.

이

신계사는 하루 두끼의 공양 이외에는 일체의 간식이나 벌식 따위가 없었다.

묻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높은 데까지 올라오는 양식을 함부로 축내서는 죄업이 무거워진다는 생각에도 그 까닭이 있었다. 그뿐 아니라 이런 순수

장난스러운 인상을 찾아낼 수 있었다.

"허리는 꾸부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파현이 행여 도파안사와 산중 아래에서 만난 그 허깨비와도 같은 공보처사나 표훈사 누각의 노승과 연관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없앤 것만으로도 괜히 안도감을 가지며 말하는 것이었다.

"그렇군. 그런데 수월은 없으시지?"

그들의 은근한 대화를 듣고 있던 사미승이 끼어들었다. "머릴 전에 그 수월을 다 꾸어달라 하셔서 소승이 꾸어서 붙여 태웠습니다. 왜 그 수월에 공금한 사연이라도 있으세요?"

이렇게 해서 신계사를 찾아온 그들의 목적은 생(生)으로는 이루지 못했지만 사(死)로는 이룬 셈이었다.

다시 신계사 묘사체 섬돌에는 나막신이 나 짙긴 따위가 가지런히 놓이게 된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하루내내 누구 하나 찾아오지 않는 도량이라 산중에는 달력도 없다는 말이 화두가 아니라도 되었다.

다른 산승들은 증언으로써 그만그만하

"아직 가르칠 줄 모르는군."

"어째서 그렇습니까?"

"마음은 재주부리는 관대, 의식(意-意識)은 관대높이에 장단맞추는 것인데 어찌 그것으로 가르친단 말인가?"

이 말은 문자는 손가락이 아니라 어찌 손가락만 빨고 때가 부르기만을 바라보는가라는 뜻인가.

"마음으로 가르칠 수 없다면 허공이 가르칩니까?"

"오허려 그렇잖나."

이 격렬한 대화의 거랑(學場)에서 학승은 마조의 선기(禪機)를 인정하지 않고 뒤 처나가려다가 크게 깨닫게 되자 마조에게 절을 하였다.

"이 문한 사람이. 절을 해서 무얼 하는나."

이렇게면 아는 것도 그대가 알고 모르는 것도 그대가 모를 따름인데 어느 농에게 절하고 어느 농에게 묻는다는 것인가. 그만 해둘라 하는 관세였다.

여가에서 학승도 한결을 나아갔다.

이 말을 하자마자 수월이 헛디딘 발 때문에 바위너설로 낸 길 아래 버림에 미끄러졌다.

영락없이 추락해서 저 아래의 괴부성이 승장이 뒤편했지만 짙긴 목숨이어서인지 박달나무 뿌리에 걸려서 거기에 매달린 신세가 되었다.

파현은 이런 때 다시 태풍속의 바다에서 그랬던 것처럼 아주 침착하였다.

"거기 좀 계시지요. 마구잡이로 지혜를 내는 일은 지혜가 아닙니다."

말에 들어있는 뜻은 만만치 않았다.

그런 파현이 넉름 위쪽으로 올라가서 아주 굵직한 한나뭇을 분질러서 가지들을 쳐냈다. 그 한나뭇을 수월 쪽으로 내려보내어 그 끝을 두 손으로 쥐도록 하였다.

파현이 넉름 잡아 올렸다. "큰 고기를 낚았습시다" 라고 그가 큰소리를 쳤다. 그 메아리도 잦다가 작아져 갔다.

그림·조항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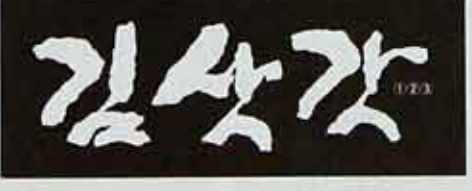


고은 장편소설

시가 죽으면 시인이 살아내고
시인이 죽으면 시가 살아난다.
대사인 고은 선생이 바라보는 파운(破韻)의 농시(弄詩),
김삿갓의 시 세계와 방향

내가 가장 놀라워하는 것은 김삿갓의 방향 자체이다.
방향이란 그것의 실질은 남편작이보다
아주 힘든 노동으로서의 행위이다.
방향정신(이탈로)사람들의 심상 안에 걸려 있는
오래 현실 탈출의 향수(嚮想)인지 모른다.
방향정신(이탈로) 가장 어려운 무상성(無常性)의 구현이다.

—작가의 말— 중에서
①·②·③ 각권 6,500원



마음이 열리면 天堂도 보이시요.

시인 윤지원 스님이 산문 밖 우바이에게 보내는 산사의 편지

情 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어서 오랜 세월과 더불어 많은 사연을 동반하게 됩니다.
누구나 곡진한 사연 하나 정도는 가지고 살듯이,
구름을 벗히고 산에 깃들여 사는 수행자에게도 닦아도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情이란 것이 있지요

—본문 중에서—

산문 밖 우바이로부터 거둬지는 서신을 받고 출가 승려로서 인간적 사랑과 그리움, 연민, 고독과 고뇌, 변민, 원망, 미움, 증오, 시기, 질투, 추억, 깨달음, 현실과 영원 등을 묻고 진솔하게 답한 내용들이다. 산사의 골 깊은 운치와 서정어린 문체로 아름답고 평안한 마음을 열어주는 지혜의 보고이다. 지금 전국 서점서 절찬리 판매 중!

신국판 / 300쪽 / 값 6,000원

서울시 은평구 역촌1동 17-12
전화 : (02) 352-6406-7
팩스 : (02) 389-3262

도서출판 **삼보**
전화 : (02) 720-9372-3
팩스 : (02) 723-0646